

제 36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襄陽笠岩農謠

일시 : 1995. 10. 11 ~ 10. 13

장소 : 충남 공주시 종합운동장



江 原 道



양 양 입 압 농 요

— 제 36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작품 —

□ 작품해설

양양군의 남단부에 위치한 현남면 입암리(갯바위)는 화상천유역의 들판을 중심으로 오래전 촌락이 형성된 고전마을로 논농사를 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때문에 입암리에는 전통민속이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생성되었고 특히 논농사를 지으며 부르는 농요가 다양하게 불려진 마을이다.

양양 입암농요는 성군소리, 모찌기소리, 김매기소리 중 큰소리, 오덕떼기, 양승백이, 동따래기, 사령가, 주름이 등 일의 과정마다 불려지던 농요로서 농요의 가락은 정적이며 사설은 지역의 명소나 삶의 애환을 통속적이고 해학적으로 등장시켰으며 또한 권농, 애향, 충효, 근면, 애정, 축원, 덕담등의 사설 내용이 많다.

이 마을은 유동 가구가 별로 없어 외지로부터 전입된 사람들로 인한 마을 고유의 전통민속이 희석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마을이다.

이 입암리 농요는 일의 과정과 동작에 적합하게 짜여져 있어 항상 힘든 농사일을 하는 농민들에게 일의 능률을 올리고 피로를 잊게하고 흥을 일으키게 하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이농현상과 기계화 영농으로 질(두레)조직은 없어진지 오래되었고 들녘마다 울려 퍼지던 입암리 농요를 당해마을 노인들의 고증으로 발굴됨은 꼭 다행스러운 일이며 길이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 출연과정

1. 성군소리

소와 쟁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모를 심을 수 있도록 보구레로 논을 갈고 씨레로 논을 고르는 과정에 부르는 농요로 소를 의인화하여 소와 대화하는 형식의 사설과 가락의 소리이다. 또 주위환경, 애환등을 즉흥적 사설로 부르는 때가 많다.

소를 모는 사람을 “성군”이라고 하며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상일꾼으로 일터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한다.

2. 모찌기 소리

모판에서 모를 찢 때(모를 뽑는 과정)부르는 소리로서 짧고 같은 동작의 작업과정이 되풀이 되므로 가락과 사설이 단조롭고 계속 반복되는 이어부르기 형태의 농요이다.

몇사람이 주고 받으며 소리를 부르며 다른 사람은 “나간다”, “잘한다” 그리고 구음등의 추임새로 흥을 돋우며 모찌기를 한다.

3. 모심기 소리

모를 심으며 부르는 소리로 주고 받으며 부르는 소리이다. 아리랑타령과 같은 여러가지 민요를 삽입해 부르기도 한다. 다른사람은 “이히어허” 등의 추임새로 흥을 돋우며 모를 심는다.

4. 팔래놀이

원래는 질을 먹을때 이루어졌던 것으로 일의 능숙도에 따라 품앗이 또는 질(두레)에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영좌(두레의 대표)를 모시고 총각대방이 팔래를 할 자격이 된 사람에게 술과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여 영좌에게 예를 올리는 형식으로 질의 성원이 되는 절대적인 과정이었다.

이로서 질의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절차가 있으나 연출상 생략할 수 밖에 없다.



5. 김매기 소리

가. 큰소리 (큰노래)

아침이슬을 턴다고 하며 김을 매기 시작하는 아침에 부르는 소리로서 “노래를 짓는다”, 또는 “노래를 싸주는 농요”라고 한다.

앞소리인 매김소리와 뒷소리를 동시에 부르는 2부합창과 같은 소리로서 보통 앞소리에 이어 뒷소리를 부르는 형식과는 다른 특이한 창법의 농요로서 앞소리와 병창을 하여 소리의 어울림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농요로 다음 김매기소리를 잘하도록 목소리를 가다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침 김매기를 시작할 때만 부른다.

반드시 큰소리를 한 후에야 오덕떼기와 같은 소리를 한다.

나. 오 덕 떼 기

김을 맬때 주로 많이 부르는 농요로서 가창력이 뛰어나고 정적인 농요이다.

조선조 세조대왕께서 병을 치료하고자 산수가 수려한 곳을 찾아 다니던 중 오대산에서 요양을 하며 부근을 산책할 때 김을 매는 농부들의 농요소리가 너무 좋아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제 김을 매며 부르는 소리라고 하자 세조대왕께서는 내가 곡명을 붙여 주겠노라고 한 후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자가 들어있는 곳에서 덕을 입어 병을 떼었으니 “오덕떼기”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자 농부들은 그것이 참 좋겠다고 하여 그후부터 오덕떼기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고증을 이번에 얻게 되었다.

다. 양 승 백 이

양승백이는 김을 매며 부르는 대표적인 농요로서 많이 불리워지던 소리이다.

울진 태생의 「양승백」이라는 선비는 풍류를 즐겨 방랑하며 글을 짓는 선비로서 항상 걸식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기가 일쑤여서 밥값으로 글을 한 수씩 지어 주었다고 한다. 마침 입암리를 지나던 중 김매는 일터에서 점심을 얻어먹고 시 한수를 지어 주었는데 이 시로 김을 매며 소리를 부르라고 하였다고 한다.

곡명은 “양승백이”라 하라고 부탁하며 그 까닭은 내이름을 잊지말고 다음에 또 오면 밥을 먹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 후로 농요의 곡명이 양승백이로 불려지게 되었으며 농요의 사설 내용에 “돌아왔네 돌아왔네 양승백이 또 돌아왔네” 등의 사설을 보면 그 유래가 참 재미있기도 하다.

라. 동 따 래 기

“동따라기”, “똥따래기” 라고도 하는 이 농요도 김을 매며 많이 불려지는 소리이다.

유래는 항상 백성의 원성을 사던 하급관리인 「정용」이라는 아전의 관복 소매가 떨어진 것을 보고 노래로 놀려 주는 뜻에서 또는 직접 말로 옷의 동을 달아 입으라고 할 수 없어 노래로 전했다는 유래의 재미있는 농요이다.

“정용 소매에 동 떨어졌네 감쳐주게 감쳐주게 정용 소매 감쳐주게” 등의 사설과 “동 달아입지, 동 떨어졌네”에서 본 동따래기의 어원으로 보면 노인들의 고증을 의미있게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마. 사 령 가

“사령가” 또는 “사랑가” 라고도 하는 이 농요는 김매기를 하면서 부르는 소리로 다른 소리보다 비교적 경쾌하고 흥겨운 농요와 짧은 호흡으로 소리를 할 수 있어 힘든 소리를 하다가 쉽게 부를 수 있는 농요이다.

바. 주 름 이

김을 매는 대형을 둥글게 원으로 모이면서 주름을 잡듯 좁혀가며 매던 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유래된 농요이다. 첫참 세참 예지랑참 또 점심때가 되어 쉬려고 할 때와 저녁일이 끝날 때 마무리하면서 부르는 소리로 거의 아·으·우등의 구음창으로 하는 소리이다.



농요

1. 성군소리

내 탓이냐 네 탓이냐 내가 못쉬는 것은 주인 탓이오
네가 쉬지 못하는 것은 내 담배가 떨어진 탓이라
어디야 올라서라 내려서라 이놈이 주인놈 닮았구나

2. 모심기 소리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나주게 바다 같은 이 논뻘미 심어나주게
남전 백설이 잦아지도록 봄소식을 몰랐나
지어가네 지어가네 담배참이 지어가네
뒷동산에 행화춘절이 나를 알려주네
앞능선에 저 묵밭을 작년에도 묵더니
금년에도 날과 같이 또 묵는구나

3. 큰소리(큰노래)

창밖에 노송을 심어 노송 끝에 학이 앉아
그 학은 젊어가고 우리 인생은 늙어간다
늙기 젊기는 설지 않아도
내 머리 시는 양이 더욱 설다
팔만 장안 억만가로 한강 어룡은 꼬리로 치고
넘실 넘실 춤을 추며 억만 가호를 굽어보네

〈큰 노래 싸는 소리〉

어리시구나 저리시구나 지화자 절시구나 에에헤

4. 오덕 떼기

남산 봉학이 죽순을 물고 한양 성내를 굽어보네
양양이라 낙산사 의상대 고기 낚는 저 선비야
그 고기 낚지 말고 이네 몸을 낚아주오
월정리 오대산 물은 청심대로 감돌아 든다
오대산 중놈 세모시 꼬깔은 정방 처녀 솜씨로다
건곤이 불러 월정적하니 적막강산이 금백년이라
신 사다주게 신 사다주게 총각 낭군이 신 사다 주게
술맛이 좋고 딸 둔 집에 아침 저녁 놀러간다
연줄가네 연줄가네 해와 달 속에 연줄가네

5. 양승백이

더디온다 더디온다 칠월 한달이 더디온다
돌아왔네 또 돌아왔네 양승백이 다시 돌아왔네
칠월 한달 얼른 오면 부모 동생 들러 만나보세
돈 실러가세 돈 실러가세 충주 목포로 돈 실러가세
충주 목포 돈 실어 놓고 서천 개수로 술타령 가세

〈후 령〉

에헤야 에헤야 으으허 으허
어이구 지화자 자자 에이고 지야
지어 월잔 부어도 못오시나

6. 동따래기

동 떨어졌네 동 떨어졌네 정용소매에 동 떨어졌네
감쳐주게 감쳐주게 정용 소매를 감쳐주게

7. 사령가(사랑가)

갈가나 보다 갈가나 보다 내 님 찾아 갈가나 보다
술집에 큰 아기 술잔을 들고 배푸장 밑으로 왕래하네
겉에 겉잎 제쳐 놓고 속에 속잎 나를 주오
건져주게 건져주게 빨래 방치 건져주게

〈후 령〉

에에헤 사리라 에에으 아아 아무리 하여도 내 사리요

8. 주름이(구음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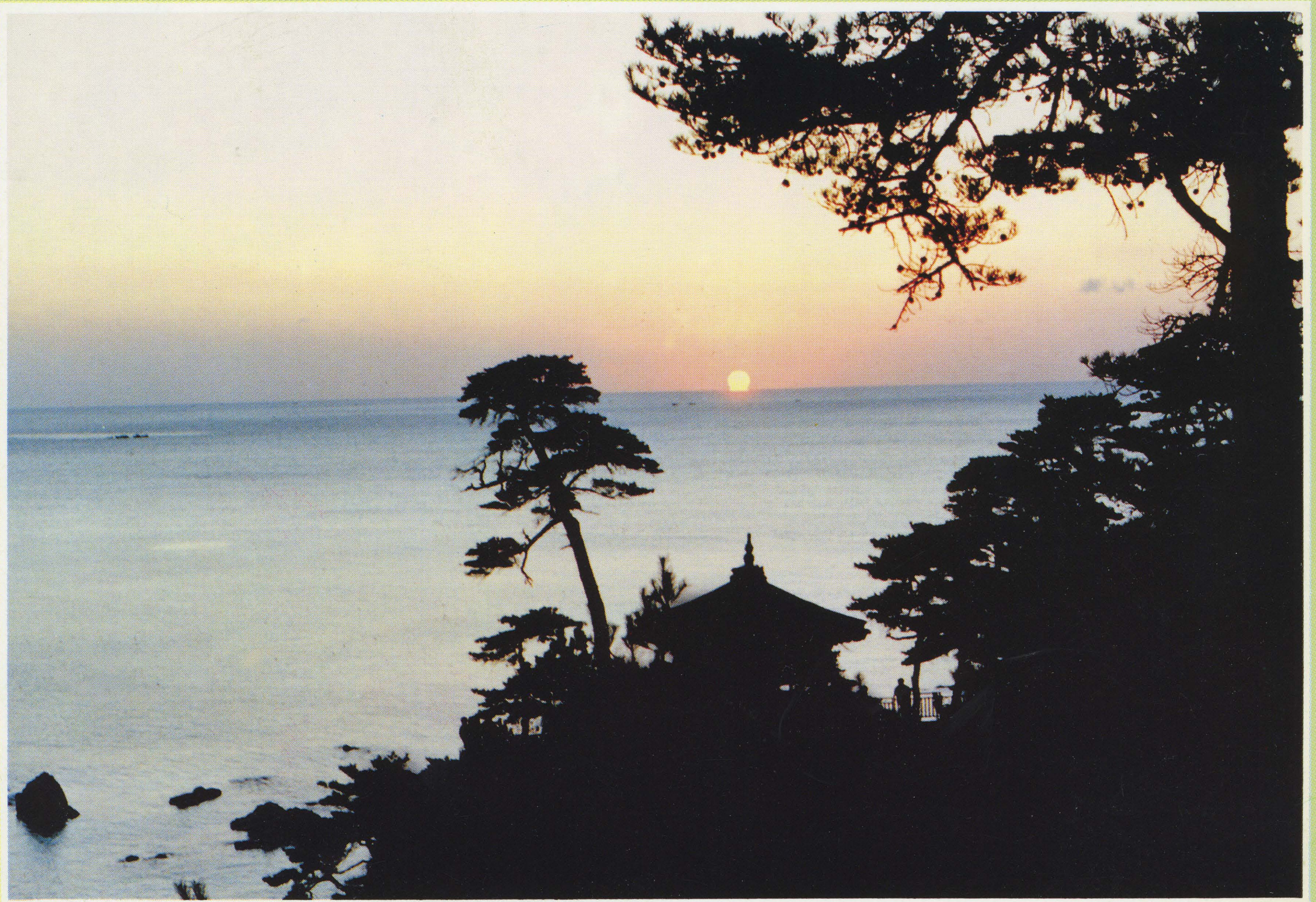
에에헤 에헤헤 에헤이요 우여사아

에헤야 에헤헤 에헤이요 우여싸대

【출 연 자】

- ◈ 고 증 : 김진탁, 장연급, 이종구
- ◈ 발굴 및 지도 : 최종덕(양양전통민속보존회장, 오색국교 교사)
- ◈ 영 좌 : 김진형
- ◈ 소 리 : 김진탁, 장연급, 김창수, 엄경호, 강대욱, 이종대
- ◈ 질꾼(두레꾼) : 장이식외 71명





양양 낙산사 의상대 일출